

고대 그리스~미얀마까지 민주화운동 고찰

시민자유대학, 전문가 8인 초청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 주제
16일~12월 4일까지 특강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는 오늘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담론을 다각도로 숙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자유대학이 마련한 전문가 8인의 특강이 그것.

시민자유대학(학장 류재한)은 16일부터 12월 4일까지(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연수원 기쁨관 중강당(북구 능안로 30번길 5)에서 강좌를 개최한다. 주제는 'KNOW DEMOCRACY: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로, 고대그리스 민주주의부터 현재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고찰한다.

1강(16일)은 박구용 교수가 '데모크라시, 팬-데모크라시'를 주제로 문을 연다. 민주주의의 변화와 확장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다.



박구용 교수

류재한 교수

2강(23일)은 미국사를 전공한 김봉중 교수(전 남대)가 '미국 독립혁명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역할 등을 조망한다.

3강(30일)과 4강(11월 6일)은 김정환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HK연구교수와 하남 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가 각각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 '1989년 천안문 항쟁과 중국'을 이야기한다.

중동아랍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는 강좌도 마련돼 있다. 5강

(13일)은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가 '2011년 아랍스프링이 중동아랍국가의 인권 의식 변화에 끼친 영향'을 강연한다.

6강(20일)은 유명하 백석대 중국어학과 교수가 '홍콩의 정체성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중국과의 정체성 충돌 등을 분석한다.

7강(27일)은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연구교수가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미얀마 현대사를 관통하는 군부의 기능과 역할, 향후 미얀마 민주화의 미래와 과제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 강좌(12월 4일)은 류재한 학장이 '창조적 분노와 프랑스시민혁명의 정신'을 매개로 프랑스의 '톨레랑스'와 '창조적 분노'를 이야기 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자유대학은 이밖에 '은유로 보는 한국 사회', '도덕의 원천: 동서양의 도덕이론', '심리치료가 바라본 인간과 사회'를 가을학기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부터는 특별 프로그램 '나라미술캠프'를 통해 시민과 미술창작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961-11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개발에 얽혀 있는 도시 풍경 조명

최하얀·정민정 협업전
20일까지 오버랩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이하 오버랩)은 지역 내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ICC 프로그램을 지난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첫 독립기획전시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제공했다.

올해 프로그램 참가자인 최하얀 큐레이터가 정민정 작가와 함께 '뽀와 살'을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오버랩에서 전시회를 연다. 미술이론을 전공한 최씨는 광주 도시적 특성에 주목하고 소수자들의 서사에 귀 기울이며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전시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독립큐레이터다.

'뽀와 살'전은 오버랩이 위치해 있는 월산동의 풍경을 조명하고 그 곳에 얽혀있는 재개발의 논리를 폭포와 광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확장시켜보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에는 영상과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 주제의 전달을 시도해온 정민정 작가가 참여



'O.Puppy, 개의 유골'

해 실천 방식으로서 예술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본다.

최씨는 "처음 월산동을 방문했을 때, 그 황량한 풍경에서 비어가는 지역사회의 모습과 광주 및 전남의 풍경, 우리가 속해있는 예술생태계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정 작가와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전시 주제는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새로운 지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류의 원초적 본능을 모티브로 인류 미래 모습으로 그린 '호모 루피엔스'.

(ACC 제공)

인류의 진화와 미래, 춤으로 묘사

ACC '호모 루피엔스' 공연
11월 13~14일 ACC 예술극장

'호모 루피엔스'(루덴스+사피엔스)는 호모 루덴스(유희의 인간)와 호모 사피엔스(지혜의 인간)의 합성어다. 미래의 인간상인 호모 루덴스가 현재의 인간상인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합성어다.

인류의 원초적 본능을 현시대 자화상, 나아가 인류 미래 모습으로 그려낸 현대무용극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오는 11월 13~14일 이틀 동안 ACC 예술극장에서 무

용극 '호모 루피엔스'를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ACC 예술극장의 실험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무가 김정신의 인간 본성 탐구 3부작 호모(HOMO)의 마지막 신작이다.

호모 연속물을 통찰하는 이번 작품은 탈출 개념을 기반으로 인간 본성을 탐색한다. 춤을 통해 인류 진화와 미래를 묘사하고 미래 속 인간의 자화상을 들여다본다. 최우석, 김희정, 정소희, 심재호, 양승관, 장라온, 한 채령 등이 출연한다.

한편 '호모 루피엔스'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파리 스텍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선정돼 파리한국문화원에서 공연 상영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공연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스텍 페스티벌 공연 영상은 스텍페스티벌 누리집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공연 티켓 3만원. 누리집에서 확인. 문의 062-601-4614. /박성천 기자 skypark@

'나만의 문화유산해설사' 앱 통해 문화유산 방문 인증하면 상품권

문화재청은 '나만의 문화유산해설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문화유산을 방문해 인증하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전라도의 방문인증 대상 문화유산에는 순천 선암사 승선교(보물), 순천만(명승), 남원 광한루원(명승) 등이다.

한편 이번 인증행사의 대상 문화유산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별로 3곳을 선정했다. 지역별 3곳을 모두 방문인증하면 도별로 30명을 추첨해 총 12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6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문화학교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민요·판소리·가야금·대금·가야금병창·장고·고법·해금·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운영하며,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어린이강좌는 가야금·해금 2개 강좌가 마련된다.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29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다.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문예술단체 풍물천지의 '내일로, 내 평범했던 일상으로' 공연이 17일 우도농악담양전수관에서 열린다.

협주곡 '소나기' 국악기·서양악기 접목해 듣다

풍물천지 정기연주회
17일 우도농악담양전수관

전문예술단체 풍물천지(대표 차현숙·이하 풍물천지)가 워드코로나 시대를 열 색다른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

풍물천지 정기연주회 '내일로, 내 평범했던 일상으로'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우도농악담양전수관에서 열린다.

담양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활동중인 풍물천지는 전세계를 뚫친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무너졌던 평범했던 삶이 다시 전개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3월부터 담양 지역의 주민과 국악을 배우고 싶은 일반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도농악판굿, 사물놀이, 설장구, 소고놀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특히 국악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모인 풍물천지 소속 '풍물천지 아리솔' 단원들의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접목된 협주곡 '소나기(작곡 이경섭)' 연주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이밖에 타조털을 이용해 만든 부포를 쓰고 뿔과 리를 치는 놀이 '남도 부포놀이', 대규모 북이 모여 단체 군무를 보여주는 '북의 대화주'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공연은 풍물천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무료관람. 문의 010-5684-479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